

협회사식 kira news

이사회 개최

■ 제12회 이사회

2005년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9월 13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5 전국건축사대회 수지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예산의 목간전용 승인의 건,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건축의 날' 후원금 지원 승인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회관지분에 관한 건, 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정관개정 추진에 관한 건, 대한건축사협회 영문명칭 변경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05 전국건축사대회 수지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2005 전국건축사대회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잉여금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기로 함.
 - ▷ 결산 잉여금 : 57,543,063원
- 제2호의안 : 예산의 목간전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연구사업비(27,000,000원) → 법제도개선사업비
 - ▷ 임원업무활동비(30,000,000원) → 판공비
- 제3호의안 :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으로 이길웅 부회장을 선임키로 하고, 위원 선임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건축의 날 후원금 지원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후원단체 : 대한건축학회
 - ▷ 후원금액 : 5,000,000원

▷ 지출예산 : 일반회계 사업비(보조금)

- 제5호의안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 이사와 시도건축사회 회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되, 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명칭, 소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하고,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6호의안 : 회관지분에 관한 건
 - 회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결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함. 다만, 서울건축사회가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키로 함.
- 제7호의안 : 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 건설업체의 설계검검과 관련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키로 하고, 세부사항은 정책개발 T.F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 일 시 : 2005. 9. 27(화) 14시
 - ▷ 장 소 : 예술의 전당 문화사랑방 대회의실
 - ▷ 소요예산 : 1,000만원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 추진에 관한 건
 - 2006년 2월 정기총회에 상정을 목표로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하되 10월말까지는 법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로 함.
- 제2호 : 대한건축사협회 영문명칭 변경에 관한 건
 - 협회의 영문명칭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위원회 소식

■ 홍보·공제사업위원회 합동회의

2005년도 홍보·공제사업위원회 합동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자재인증'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자재인증'에 관한 건

- '건축자재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회자재인증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위원은 1주일 내로 이종정 위원장을 주축으로 홍보소위원회의 이규환 위원외 1명, 공제사업위원회 1~2명, 국제위원회 2명, 필요에 따라 편찬소위원회 1명, 서울건축사신문 편집위원 2명, 건축자재관련 담당교수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함.
- 2006 경향하우징페어 건축자재전시회(2006년 2월 17일~22일)부터 '건축자재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회자재인증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추진 일정을 정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함.

■ 제7회 법제위원회

2005년도 제7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8월 29일 오전11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계약서 문안조정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설계계약서 문안조정에 관한 건

- 설계계약서 개정(안)의 내용을 축조심하고, 일부 수정·보완하기로 함.
- ▷ 향후 건설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
- ▷ 제11조(이행지체), 제12조(이행보증보험 증서의 제출),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 의 대가지급), 제18조(저작권보호) 등

■ 제18회 정책개발 T/F팀

2005년도 제18회 정책개발 T/F팀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8월 29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업체 설계검업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업체 설계검업에 관한 건

- 건설업체 설계검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하기로 함.

① 항의문서 전달 : '05. 8. 30.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회의내용이 설계검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되는 경우 항의 문서를 전달하고 즉각 퇴장

② 인터넷을 통한 정당성 홍보 및 시위 :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검업허용을 규탄하고 관련기관(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규제기획단, 건교부 등) 및 언론에 적극 대응

③ 집회신고 : 정부과천청사 및 광화문청사에서 집회를 갖고 의사 표현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위하여 별도의 비상기구를 설치

⑤ 대학과 연계한 대처 : 전국의 건축대학(5년제) 및 건축설계전공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함

⑥ 건단연(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탈퇴 : 건설회사의 이익을 앞세우는 건설단체연합회에 우리가 참여할 이유 없음.

■ 제2회 협회발전위원회

2005년도 제2회 협회발전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개정 추진 방향에 관한 건, 건축사 업무영역 확대에 관한 건, 건축연구원 운영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개정 추진 방향에 관한 건

- 협회발전위원회에서는 정관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제위원장과 협의하기로 함.
- 정관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황근욱, 김용미 위원이 담당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업무영역 확대에 관한 건

- 건축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기로 하고, 최남수 부위원장과

위원 4인(김희곤, 김진식, 김형수, 차종필, 최운영)이 담당하기로 함.

- ▷ 부동산 중개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 ▷ 건축물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미관을 고려해야 하므로 설계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모색

▷ 건축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자와 건축사가 충돌하는 영역이 있지만, 리모델링시 구조와 안전부문을 반드시 건축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과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건축사가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연구원 운영에 관한 건

-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후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하고, 김진명, 정봉원 위원이 담당하기로 함.

※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책개발 T·F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책개발 T·F팀과 협의하기로 함.

■ 제8회 법제위원회

2005년도 제8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9월 8일 오후2시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관한 건

- 설계계약서 개정(안)의 내용을 축조심하고, 일부 수정·보완하기로 함.
- ▷ 제3조(용역의범위 및 품질),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제20조(외주의 제한), 제21조(분쟁조정)

▷ 제22조(통지방법), 별표(설계용역비 산출기준표) 등

• 기타 사항

- 민주노동당의 공사감리개정안 토론회와 관련하여 9월말쯤 민주노동당의 실무자와 법제위가 공사감리제도 등에 대해 토론회 기회를 갖기로 함.
- 방재성능 평가제 도입에 대한 자문회의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도 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건축물의 품질평가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함).

2005 건축사자격시험 시행

200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지난 9월 11(일)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총 9개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출원자 6,515명 중에 5,555명(외국건축사 21명 포함)이 응시하여 85.26%의 응시율을 보인 이번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1교시 「대지계획」이 180여분간 진행되었고, 2교시 「건축설계 I」이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80여분간, 3교시 「건축설계 II」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80여분간 진행되었다.

합격자예정자 발표는 11월 11(금)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2005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발표 및 전시회 개최

「달성군청사(비주거부문), 「타워팰리스III(주거부문) 대상 수상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2005한국건축문화대상의 수상작품이 발표됐다.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에는 비주거부문에 「달성군청사(설계자 : 이상림(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현대건설(주)/화성산업(주), 건축주 : 달성군수」가, 주거부문에 「타워팰리스III(설계자 : 박 승(주)삼우 종합건축사사

무소, 시공자 : 삼성중공업주식회사, 건축주 : 삼성생명보험(주)」가 선정되어 각각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상에 오른 대치 동부센트레빌과 배재대학교 예술관이 국무총리상을, 옥계휴게소를 비롯한 4개 작품이 우수상인 건설교통부장, 씬지 길을 포함한 15점이 특선으로서 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일반 및 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김규태, 유소래, 한재혁(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동 대학원 건축공학과)씨가 공동 출품한 「커뮤니케이션-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안」이 금상을 차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 은상 2작품, 동상 3작품, 입선 25작품 등 모두 31개 작품이 입상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을, 공로상에는 장기창 건설기술혁신기획단 단장과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이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으며 대상 두 작품에 대통령상, 본상 두 작품에 국무총리상, 우수상 4작품에 건설교통부장관상, 특선 15작품에 대한건축사협회장·(주)서울경제신문사장상(공동명義)이 각각 수여됐다.

계획건축물부문의 금상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과 상금이, 은상과 동상, 입선작은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아울러 동상이상 수상자 중 영여 인터뷰 심사를 거쳐 2명을 선발, 아카시아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이 주어진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그동안 기성 및 예비 건축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우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대표 건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축계소식 arch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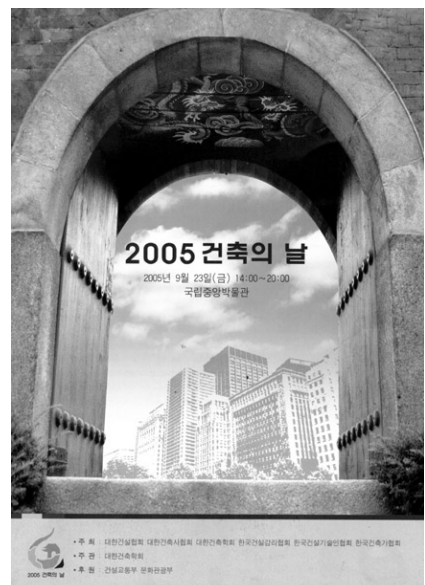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인증사업 개시 안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에서는 2005년 9월 29일자로 인증규준을 공표하고 2005년 11월 14일 인증후보자격 신청 접수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인증사업을 시작했다.

인증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aab.or.kr>)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4-34
건축회관 5층, 02-521-1930,
<http://www.kaab.or.kr>

‘2005 건축의 날’ 행사 개최



전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우리협회를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한 제

1회 '2005 건축의 날' 행사가 9월 23일 오후 5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건축3단체 각 회장과 건축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5 건축의 날 위원회의 대회장인 이리형 대한건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축사, 윤석우 FKA 대표회장의 환영사와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다.

첫 건축의 날 표창을 수상한 우리협회 회원은 강행생(건축사사무소 강희), 김정식(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도무찬(신도시건축사사무소), 문준영(동인건축사사무소), 유태용(주.테제건축사사무소), 이신환(서강건축사사무소)회원이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강기세(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권오웅(주.삼보건축사사무소), 김규인(한국건축사사무소), 방철린(주.인·토종합건축사사무소), 변 용(주.원도시건축사사무소), 조성중(주.일건건축사사무소)회원이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건축의 날 제정 취지'와 '건축인의 선언' 낭독 후 식후 행사인 리셉션이 호수광장에

서 개최 되었다. 리셉션에서는 환영사와 축하인사와 함께 감사패 수여가 있었으며, 이철호 우리협회 회장의 건배제의 후 만찬 및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개최식에 앞서 오후 2시부터 개회식 전까지 '중앙박물관' 견학과 정림건축 관계자의 '중앙박물관 설계·시공 설명회', 이어령 박사의 '보이지 않는 건축의 시대'라는 내용의 초청강연회가 열렸고, 대강당 로비에서는 주요 건설회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작품과 서울시 신청사 공모전 당선작, 노들섬 예술센터 공모전 당선작,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등이 전시된 '건축물 작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

한편 '건축의 날'은 경복궁 창건일인 9월 25일로 제정하고, 올해는 공휴일인 관계로 이틀 빠르게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울 용산에 신축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으며, 건축인의 다짐을 선포하여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성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물론, 건축인 스스로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일깨우고 다짐하는 선언의 장이 되었다.

제6회 경상남도 건축대상제 작품공모

경상남도에서 건축문화지원 확보와 건축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6회 경상남도 건축대상제」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작품공모를 한다.

- 응모작품 : 2003. 10 ~ 2005. 10월에 도내에 준공된 건축물
- 응모기간 : 2005. 10. 6 ~ 11. 5(1개월)
- 응모자격 : 도내에 건축한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 응모방법 :
 - 시,군의 추천을 거쳐 도(주택과)에 접수
 -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와 같이 제출(첨부파일참조)
- 심사일시 : 2005. 11월중
- 심사위원 : 경상남도건축위원회 위원
- 수상발표 : 2005. 11월중 심사 후 개별통보

문의처 : 경상남도 주택과 담당자 김석춘
055-211-4563, <http://www.gsnd.net>

건축인 선언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은 자연 환경에 조화되는 고유한 건축문화를 추구해 왔다. 21세기를 맞아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구한 전통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보다 나은 삶과 인간의 활동을 지지하여 주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든 건축인들은 건축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건축의 날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다짐하고자 한다.

- 우리는 건축이 창작예술의 한 축이며, 또한 문화창달의 주역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쾌적한 환경을 건설하는 데 그 사명

을 다한다.

- 우리는 건축의 국제화 흐름 속에서 고유의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간 위주의 정주지를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다차원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인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과 합심하여 최적의 설계 및 기술적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한다.
- 우리는 건축이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인간적, 친환경적, 지역적, 경제적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 우리는 다양한 사회요구를 폭넓게 수용하

고 보다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심도 깊은 학술활동과 긴밀한 산학연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우리는 건축의 세계화 속에서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건축교육과 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건축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는 안전하고, 기능에 적합한 아름다운 건축의 창조자로서 전문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2005년 9월 23일 건축의 날 위원회

2005인천건축문화제 개막식 개최

지난 10월 15일 오후 2시 우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인천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2005인천건축문화축제의 개막식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번 건축문화축제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큰 주제로 개최되어 본 전시 부문, 초대전시 부문, 공모전 전시 부문, 건축백일장 전시 부문, 이벤트 행사 부문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특히 인천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와 학생 공모전, 건축백일장, 사진 공모전에는 각 부문 수상작들이 전시되어 관심을 모았는데, 인천광역시 건축상에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용선 건축사)」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IASC학생 건축공모전과 건축사진공모전에서는 「Being plus+(김윤겸, 정우석/인하대 대학원)」과 「부개동 삼부아파트 야경(박은미)」이 각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건축백일장에서는 「공모전 폐품 및 폐자재를 이용한 생태 놀이 주택(김다인, 김재인, 원재연, 김태호)」이 장원을 차지하였다.

이번 전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여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중앙홀에서 개최된다.

문의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032-437-3381~4



인천광역시 건축상 최우수상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이용선

한국건축가협회, 대한민국 건축제 및 '세계건축의 날' 기념 에세이 공모전 개최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매년 시행해온 다양한 행사들을 한자리에 모은 행사로서 '건축, 그 변화의 시작(Transforming Through Architecture)'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며, UIA에서 1985년 지정된 '세계건축의 날'(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을 기념하여 'Sharing the city'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국 에세이 공모전도 함께 개최한다.

■ 2005 대한민국건축제

2005 대한민국건축제는 '건축, 그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2005년 11월 23일(수)부터 27일(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된다.

행사내용은 일반기획전시의 건축대전일반공모전, 건축대전초대작가전, 한국건축가협회상·특별상전, 건축사진전, 서울사랑시민상·특별기획전(무라이오사무 사진전)이 열리며, 기업전시로는 건축자재전·후원회원전, 건축실무세미나가 개최된다. 아울러 컨퍼런스에서는 국제세미나 I, II와 국내세미나, Convocation Dinner, KIA총회 등이 개최되고, 이벤트로 개폐막식 및 리셉션을 비롯한 서울사랑시민상 시상식, 건축아카데미의 어린이건축학교, 중학생건축봉사워크샵 등이 개최된다.



■ '세계건축의 날' 기념 에세이 공모전

'Sharing the city'라는 테마의 전국 에세이 공모전은 출품에 자격제한 없으며 2005년 10월 3일(월)~2005년 11월 2일(수) 5시까지 A4(210x297)용지에 2p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파일명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된 문서(예_홍길동.hwp 또는 홍길동.doc)를 한국건축가협회 웹사이트(<http://www.kia.or.kr>)에 접수하면 된다.

사용언어는 국문이나 영문도 가능하며 2005년 11월 7일(월)~11월 9일(수) 이루어지는 심사를 거쳐 2005년 11월 14일(월) 심사결과가 발표되며, Best 5 선발하여 각 상금 20만원 및 상장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가협회 웹사이트(<http://www.kia.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2006 광저우 국제 건축자재 & 장식재 박람회 및 상하이 국제 주방 & 욕실 박람회 개최

아시아 최대의 건축자재 박람회인 'CBD 2006-제8회 광저우 국제 건축자재 및 장식재 박람회(8th China International Building & Decoration Fair)'와 주방 및 욕실 분야 최대의 전문 박람회인 '2006 상하이 국제 주방 & 욕실 박람회(The 11th Kitchen & Bath China '2006)'가 각각 중국에서 개최된다.

'2006 광저우 국제 건축자재 및 장식재 박람회'는 2006년 7월 6일부터 9일까지 약 4일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중국 광저우 국제 컨벤션 & 전시 센터(Guangzhou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7월에 개최되었던 제 7회 행사에는 총 11개 홀, 130,000sqm 전시면적에 14개국 1,867업체가 참가하였고, 국내에서도 개별 및 국가관으로 약 15개 업체가 본 박람회에 참가한바 있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 총 64,541명의 전문 바이어가 본 박람회를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2006 상하이 국제 주방 & 욕실 박람회'

회'는 오는 2006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중국 상하이 신도시 푸둥(Pudong), 상하이 신 국제 전시장(Shanghai New Intl Expo Center)에서 개최된다.

이 박람회에는 해마다 Kohler, Hansgrohe, Roca, Grohe, Duravit, Bravat, Delta 등 유럽의 욕실, 주방분야의 선두 브랜드들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어 욕실 및 주방분야의 신제품 소개를 위한 최적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제 11회 상하이 국제 건축박람회 (IBCTF '2006)', '가전기기 및 주택 테크놀로지 박람회(Domo China '2006)' 및 '공조 설비 박람회(Heating, Boiler, Air-Conditioning, Plumbing & Water China '2006)'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되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SBA Korea 02-725-4080

한양대학교 건축학 전공 석사과정 입시안내

한양대학교는 2006학년 석사과정부터 기존의 건축대학원 체제에서 일반대학원 건축학 전공으로 옮겨 신입생을 선발한다.

프로그램은 기존 건축대학원의 5학기 건축설계전공과 4학기 역사이론비평전공으로 동일하다. 아울러 건축설계전공의 경우 설계스튜디오 중심의 건축대학원 체제도 유지된다.

신입생 선발 전형은 2005년 10월 22일에 있을 예정이며 서류심사와 구두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문의 : 대학원 건축학과 사무실
02-2220-0258

'한-독 건축포럼' 최초 개최

오는 10월 14일 '2005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개막에 앞서 독일건축박물관에서는 한독 건축가 만나 양국의 건축과 도시를 조명하고 현대도시가 지녀야 할 공공성을 논의하는 '한-독 건축포럼' 학술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작가 중심의 전시 및 일방향성 발표와 달리 건축과 도시의 집합적 현상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상호포럼으로 기획되었으며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시도로 주목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프랑크푸르트시 문화국과 독일건축박물관이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에 직접 제안하였고, 한독 양측이 공동기획한 최초의 건축포럼이다.

행사가 열리는 건축박물관(Deutsches Architektur Museum 일명 DAM)은 지난 20년간 유럽건축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공공박물관이어서 이번 행사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독 양측에서 그간 건축과 도시의 공공성에 깊은 관심과 실천을 해온 건축가 8명이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한국측에서는 김성홍(서울시립대)이 서울의 공간구조와 도시일상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아시아적 공공성의 가능성을 논의하며, 주대관(경기대학교, 엑토건축)은 폐광촌 철암의 삶을 읽어내고 함께하는 지역공간환경운동에서 건축의 새로운 공공성을 제시한다.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마루건축)는 헤이리아트벨리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새로운 접목 방식과 건축가들의 집합적 도시문화운동을 소개하고, 김광수(이화여자대학교, 탐반건축)는 한국 도시 경관을 지배하는 방의 문화와 공공 공간의 위기와 거대 도시에서의 정주성을 진단한다.

독일측에서도 4인의 건축가가 이에 대응하는 주제로 갖고 발표에 나서는데, 유럽의 저명한 건축이론가 바르트 로츠마는 서구의 건축도시이론에 잠재되어 있는 회고적 공공 공간 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미디어가 도시경관에 가져올 가능성을 발표한다. 무크 페체트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집합주거를 현대화한 자신의 작품을 통해



여 일상건축의 공공성을 모색하고, 니콜라우스 히르쉬는 건축가의 역할이 독자적 창조자에서 공적 조정자로 변모하는 현상을 참여 작품을 통하여 보여준다. 마리 테레스 도이취는 15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한 프랑크푸르트 강변 도시공간 재생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문의 :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02-733-4303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학과개설 50주년 행사 개최

동아대학교 건축학부는 올해 학과개설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국제적 학부로서 성장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자 모든 재학생, 동문가족들이 다 함께 다짐하고 기념하는 기념사업회를 개최한다.

동아대학교 건축학부는 지난해 5월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병희 동문회 회장(23회)을 건축학부 학과개설 50주년 기념사업회 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출판, 재정, 학술, 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50년사 발간',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동문회 명부 발간', '국제학술 심포지움', '동문 건축작품집 발간', '동문 및 재학생 건축 작품 전시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7일 대신동 꽃마을에서 승학캠퍼스까지 동문가족의 등반 대회와 체육대회를 필두로 하여 오는 10월 30일(일)부터는 동문가족 체육대회(하단캠퍼스 대운동장),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동문의 밤(장소 : 교수회관 대강당), 동문 및 재학생 건축 작품전 등 건축학부 학과개설 50주년을 맞아 동문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기 위한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문찾기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고 하니 평소 연락이 없던 동문은 학과 사무실 혹은 동문 사무실로 연락 바란다.

문의 : 동문 직장 및 연락처 확인
우광민 (52회) 051-200-5727
홈페이지 : <http://www.duarch.org>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 2005)가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한달여간 안양유원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안양유원지 전역을 예술공원화하는 1차년도 사업으로서 한국과 외국의 건축가, 예술가, 디자이너를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공공예술 프로젝트이다.

‘역동적 균형(Tipping the Balance)’이라는 주제로 전시관, 전망대, 주차장, 파빌리온, 스트리트 퍼니처 등 영구 설치되는 작품 50여 점 이외에 일시적인 전시, 건축의 신경향전 등이 개최되며, 도시 계획 및 지역 개발 그리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예술이 어떻게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는 국제 심포지엄도 함께 열린다.

■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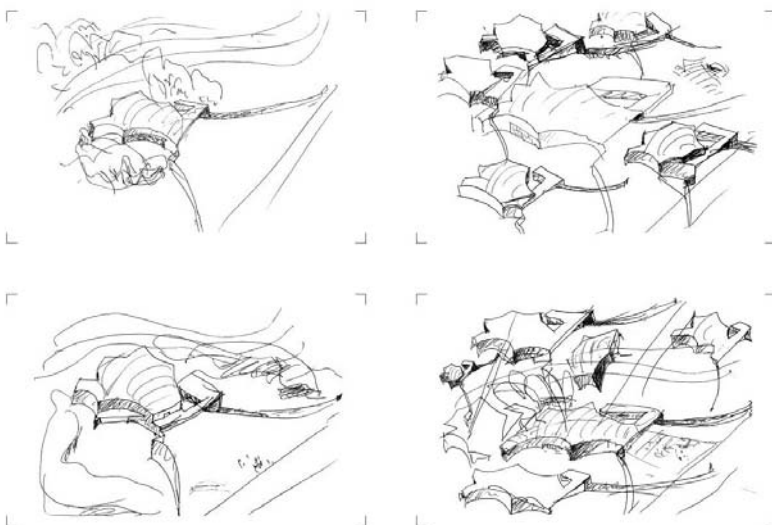
- 일시-2005년 11월 5일(토)
- 장소-안양유원지 인공폭포 광장

■ 본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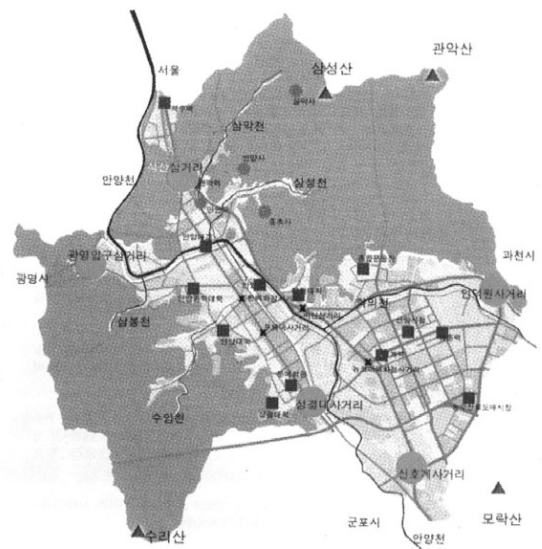
- 기간 : 2005년 11월 5일(토) - 12월 15일(목)

- 장소 : 안양유원지 아트벨리
- 참여작가 : 영구 및 일시 작품, 25개국 70여팀
- 특별전시(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건축의 새로운 경향)
 - 기간 : 2005년 10월 21일(금) - 11월 20일(일)
 - 장소 : 안양문화회관 전시관 1층
 - 관람시간 : 10:00 ~ 17:00
- 심포지엄
 - 일시 : 2005년 11월 4일(금) 10:00 ~ 18:00
 - 장소 : 안양유원지 아트벨리 내 블루몬테 대강당 (별관)
 - 주제 : 도시계획과 공공예술(Urban Planning and Public Art)
- 기자간담회 및 프레스 오픈 : 2005. 11. 5 오전 11시
- 참여작가
 - 영구작품
 - 건축-9팀/9명/10개국
 - ▷ 알바로 시자(Alvaro Siza) / 포르투갈
 - ▷ 엠브이알디비(MVRDV) / 네덜란드
 - ▷ 사미 린탈라(Sami Rintala) / 핀란드, 노르웨이

- ▷ 디디에르 피우자 파우스티노(Didier Fiuza Faustino) / 프랑스, 포르투갈
 - ▷ 존 코멜링(John Kormeling) / 네덜란드
 - ▷ 헬렌 박(Helen Park) / 한국
 - ▷ 에코 프라위터(Eko Prawoto) / 인도네시아
 - ▷ 켄고 쿠마(Kengo Kuma) / 일본
 - ▷ 엘라스티코(ELASTICO) /이태리
 - 예술 : 25팀, 31명, 13 개국
 - 조경 : 4 팀, 13명 / 4개국
 - 스트리트 퍼니처 & 디자인 : 8팀, 9명 / 3개국
 - 일시작품
 - 혼합 매체 : 11팀 / 5개국
 - 필름 및 비디오설치 : 4팀, 5명 / 5개국
 - 사운드 설치 : 1명 / 1개국
 - 공개 경쟁부문 당선 : 7팀, 8명 / 2개국
 - 워크숍 : 2팀 / 4개국
- 문의 : 031-389-5122~5,
<http://apap.anyang.go.kr>



알바로 시자 /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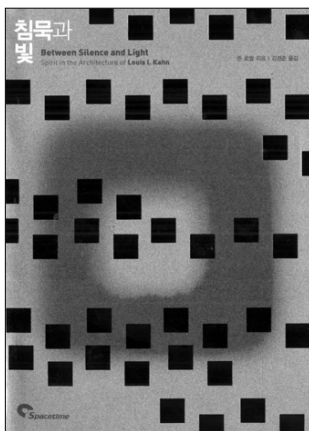
안양 아트시티 21 기본구상 계획도

신간

침묵과 빛

신간 「침묵과 빛」은 Pratt Institute의 존 로벨 교수가 루이스 칸의 건축관을 소개한 것을 두원공과대학 건축디자인과 김경준 교수가 편역한 책으로서 칸의 '정신을 표현하는 건축' 안내서이자 그가 깊이 빠져들었던 '존재의지의 질서에 대한 탐문의 기록이다.

루이스 칸은 형태제공자들의 종말이 공표된 시대에 또 다른 한 명의 형태제공자였고, 방법론주의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에 진정한 예술가였으며, 책략가들이 판치는 시대에 번뇌하는 한 인간이었다. 칸은 건축을 통해 일차원적인 사고로 이해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음을 몸으로 확인시켜준 건축가이자 사색하는 시인이미 잘 나타나 있다.



존 로벨 지음, 김경준 편역/132쪽/ 18,000원/도서출판 시공문화사 발행 02-3147-1212

Sketch+Note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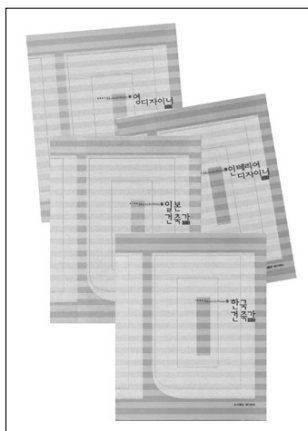
이 책들은 4권의 시리즈로 구성된 독특한 형태의 책으로서 다음 아난 건축가들의 창조 과정에서 나오는 스케치와 메모와 함께 그들의 건축관과 일상의 기록들을 엮은 「Sketch+Notes」로 전문가와 일반인이 두루 접할 수 있는 창작에 대한 사유의 메모이다. 여기에 기록된 수백 가지의 그림과 메모들은 어느 하나도 똑같은 수 없는 개인적 기록들로, 다양한 그림과 메모들을 들추어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잠재한 창조성을 이끌어 내어 일상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Sketch+Note1-한국건축가 100 / 한국의 현대 건축가 100인이 디자인 과정에서 기록한 스케치와 메모 수록.

Sketch+Note2-일본건축가 100 / 일본의 현대 건축가 100인이 디자인 과정에서 기록한 스케치와 메모 수록.

Sketch+Note 3-인테리어디자이너 100 / 한국 인테리어디자이너의 100가지 스케치와 메모 엮음.

Sketch+Note 4-영디자이너 100 / 국내외 주요 건축관련 공모전 수상자 및 국내외 20~30대 중심의 건축계 종사자 100인의 스케치와 메모 수록.



정홍채 펴냄/216쪽/각 권 17,500원/도서출판 에이엔씨 발행 02-538-7333(교 10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중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8-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9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 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화장/(042)841-5725 · 청양지역화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서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5년 9월 30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우리 협회 회관신축공사는 지하 터파기공사와 가시설 스트럿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굴토공사에 따른 대지 북측구간(GL - 8.4M)에서의 연암 도출에 따라 암 파쇄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잔토는 현재까지 총 21,200m³가 반출되었다.

지하 터파기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고 있는 총12단의 가시설 스트럿 설치공사는 9월말 현재 북측구간의 코너스트럿(9단), 남측구간의 코

너스트럿(9단), 중앙부 센터스트럿(7단)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다.

현재는 북측 및 남측구간의 코너스트럿(10단), 중앙부 센터스트럿(8단)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5. 9월말 현재 15.62%(계획 29.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토목가시설 공사는 금년 10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5. 9. 14일 개최된 제4회 소위원회에서는 설계자로부터 제출된 최종 설계도서에 대해 구

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마감재료의 등급조정과 부분적인 설계보완사항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05. 9. 30일 개최된 제15회 위원회에서는 회관사용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최종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원회의 검토사항을 확정하여 공사계약변경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계도서를 제공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관 주요자재 협찬에 대해서는 추가 협찬(PVC 바닥타일, 외부바닥벽돌 등)이 결정된 자재품목을 확정하여 시공자에게 지급자재로 공급기로 하였다.



남측부(10단) 굴토작업



북측부 코너스트럿(9단) 설치



암파쇄작업



공사 전경



투시도